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5 ~ 3/3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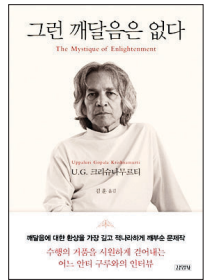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지금 여기 깨어있기 | 법륜스님 | 정토 | 6 |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 주경스님 | 마음의숲 |
| 2 | 인생수업 | 법륜스님 | 휴 | 7 |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 일야스님 | 불광출판사 |
| 3 | 밥값 했는가 | 도원스님 외 | 불광출판사 | 8 |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 조계종 신학자기 홍근, 양정진 | 모과나무 |
| 4 | 꽃잎이 떨어저도 꽃은 지지 않네 | 법스님, 채민호 | 어백 | 9 | 뒤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중 | 용화 |
| 5 |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 이일야 | 담앤북스 | 10 |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 해인사 | 해인사출판부 |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평생을 지독하게 '깨달음의 상태'와 인간의 작동 방식을 철저히 파헤친 사람이 있다. '예수나 붓다와 같은 존재'라며 추앙받던 라마나 마하리쉬와의 첫 대면에서 “당신이 갖고 계신 걸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라며 당돌한 질문을 던진 사람, 인도대통령을 지낸 철학자 라다크리슈난이 ‘인도가 낳은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며 극찬한 U.G. 크리슈나무르티이다. ‘세계의 스승’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 7년을 매일 교류하면서 깨달음을 이후 이 세상 누구보다 지두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은 사람. 파격적 언행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내게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라며 구루의 역할을 피해 다닌 사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짜 깨달은 사람’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받았던 안티 구루, U.G. 크리슈나무르티. 이 책은 무협지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역정과 누구보다 철저한 그의 견해를 가장 잘 요약한 단 한 권의 책이다.



그런 깨달음은 없다
U.G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김훈 옮김
김영사 펴냄
1만 3800원

분이 뭔가를 얻으려 인간됨을 쓰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그런 상태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자연스런 상태는 이른바 열라이나 지복, 회열 같은 종교적인 상태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험의 장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상태는 모종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날 들어갔다가 그 이

저자 20대 때 ‘무상삼매’ 경지까지 체험 수행 거품 걷어낸 영적 구루 인터뷰 신비화된 이 시대 수행풍토에 침침

틀날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 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체험이 아닙니다.”

그가 소위 ‘안티 구루’로 알려진 것은 모든 형식과 전통을 거부하는 우상파괴적인 언행을 일삼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자질을 인정받아 소위 ‘성자’라는 분들을 만나며 영적 훈련을 받았던 U.G는 20대 때 이미 니르비칼파 사마디(무상 삼매)까지 체험한 바 있다. 하지만 분노와 성욕을 비롯한 다양한 욕구들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자연스런 의문을 갖는다.

저자는 “나는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탐욕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무욕(無慾)을 이야기해. 그러나 뭐가 잘못된 거야. 내 안의 탐욕은 아주 생생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데 반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부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나 뭐가 잘못된 거야. 무욕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오도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내 탐욕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야.”라고 고백한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고 욕망을 다스리려 하는 반면, 그는 독특

하게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인정하고는, 욕망을 끊지도 욕망에 좌우되지도 않은 채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이적이고 종교적으로 덧씌운 모든 거룩한 것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한편, 직설적이면서도 때로는 익살맞게, 때로는 공격적으까지 표현되는 그의 통찰들은 불교의 선문답이나 조사 어록을 떠올리게 한다.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평범한 언어를 통해 스스로없이 대답하는 그의 메시지는 동양의 눈 밝은 사상들을 떠올리게 할 만큼 현실적이면서도 명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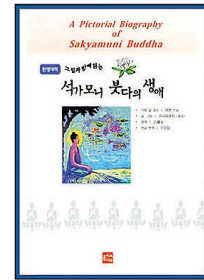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내면에 동요와 혼란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마음상태를 빚어놓고는 자기 마음이 아주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워지는 연습을 하고 고요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참된 고요함(寂靜)은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추구자들이 생각하는 죽은 마음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떤 상태일까?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찾아와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는 그 질문을 재정의하는 방식을 통해 대체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특정 종교나 도덕, 관점에 집착하고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의 힘을 접하려고 조언한다. 그 날것 그대로의 관점은 마음공부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아무튼 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우리는 그가 ‘깨달음’ 또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남다른 가르침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진정한 길은 자기 자신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한 그 길은 생각의 소산이며, 따라서 사실은 새 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에 늘 다니던 옛 길입니다. 전에 하던 게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부처님 생애를 요약한다면... “물음표와 느낌표”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글 그림 구나파우타(태국)
기획 감수 대현 스님
올리브나무 펴냄
1만2천원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한 대현 스님(산청 정각사)이, 태국 불자가 쓰고 타이완의 ‘붓다교육기금회’서 중영대역판으로 펴낸 <A Pictorial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를 번역 소개하고 싶다는 원을 세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긴 인생의 밝은 빛을 조금이라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의 종교적 현실 속에서 절감했기 때문이다.

대현 스님은 6~7년 전 자신의 수행담과 함께 수행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선승의 길>을 펴내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직접 소개하는

218컷 그림과 함께 한글과 영어로 수록

대현 스님, 책 말미에 ‘사찰예절’도 실어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선승의 길>에서 스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의지와 애씀이 요구되는 수행의 길을 피력하기보다 일정 수준을 넘기만 하면 화두참선이 ‘맛이 있어진다’는 것을 더 강조했다.

대현 스님은 “참선을 하게 되면 지루함과 외로움이 사라진다. 세속인들은 지루함과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긴다. 하지만 참선을 하면, 아무런 긴 동짓날 밤 잠이 오지 않을 지라도 괴롭지 않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든, 버스를 타고 가는 긴 여행의 시간이든 전혀 지루하지 않다. 깊은 산속 조그마한 도굴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화두라는 애인이 있어 잠시도 나를 떠나

버리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라고 설명한다.

화두라는 것은 무엇일까? 화두의 시초는 왕세자의 신분으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다가 성 밖에 나가 늙고 병든 사람의 모습을 본 싯다르타에게 생겨난 의문부호 아닐까? 삶의 바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무릇 목숨 지닌 모든 것들은 왜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지, 저절로 화두가 생겨났던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스님은 “한 나라 왕자로 태어난 그분 생애를 간략히 요약한다면, 아마도 ‘물음표와 느낌표’가 되지 않을까요?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 열정이 있었기에 그분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느낌표를 얻게 되었고, 그 느낌표를 내내 풀어내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 주셨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그 느낌표의 감동 속에서 진정한 실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다.”고 강조한다.

불교라는 큰 산맥의 시초는 2500여 년 전,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에게서 비롯됐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는 구도와 깨달음의 빛, 그리고 빛을 전하는 일로 요약될 수 있다. 깨달음이란,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한 여정에 다름 아니다. 불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부처님의 생애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책에는 218컷의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영어도 수록해 놓았다. 또한 책 말미에는 사찰예절에 대해 대현 스님이 쓴 글을 실었다.

김주일 기자

▲책속 내용 요약

고요한 밤중, 싯다르타 왕자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왕궁을 떠났다. 왕자는 영리한 백마 칸타카를 타고 성을 떠났다. 찬다가만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을 가로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동안 말을 타고 간 후, 왕자는 말을 멈추고 돌아서서, 맑고 밝은 달빛을 받고 있는 카필라 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떠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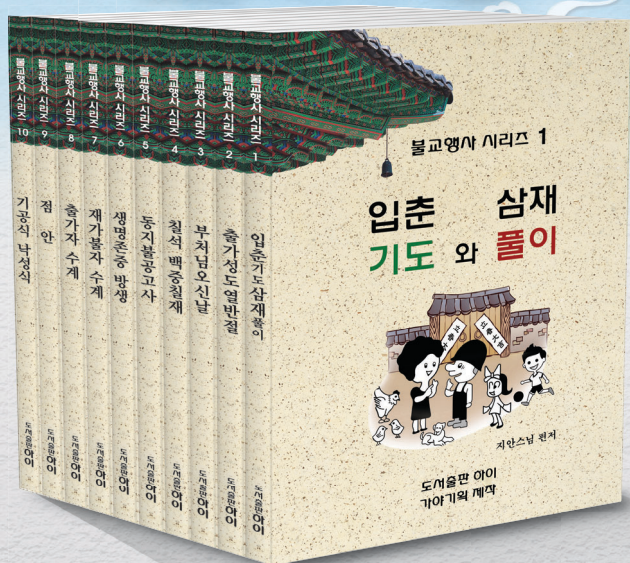
마침내 싯다르타는, 인류와 다른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광활한 고통의 바다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지(無知) 때문이요 덧없는 쾌락에 집착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윤회를 벗어나기 위

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탐욕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데에 있다.

싯다르타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인 누진통(漏盡通)을 획득했다. 그는 모든 욕망과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다. 5월 보름달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다. 싯다르타는 35세에 보리수 아래에서 최고 경지의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다하여 그때부터 세상은 빛나는 등불을 갖게 됐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언제나 깨어 있어야.”

불교행사 지침서 시리즈 전 10권 출간!



**알기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시리즈 전 10권 출간!



- 행사시리즈 1: 입춘삼재풀이(140쪽)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입춘기도순서, 입춘기도진행, 삼보통칭 삼재풀이 불교식, 신중칭, 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개별식, 입춘축, 삼재부적
- 행사시리즈 2: 출가성도열반(202쪽) 출가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찬, 성도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성도절독경예찬, 열반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찬
- 행사시리즈 3: 부처님오신날(160쪽) 봉축행사 계획, 봉축행사 준비, 연등 만들기, 연등 설치, 봉축법요식 식순, 법요식 진행, 법요식 노래악보, 봉축예경, 연등공양 공덕
- 행사시리즈 4: 칠석과 백중날(180쪽) 칠석의례, 칠성본풀이, 칠석기도 준비 진행, 우란분절 준비, 우란분절 식순, 우란분절 진행, 영가시식
- 행사시리즈 5: 동지불공고사(150쪽) 동지정의, 세시공숙, 동지불공 준비, 동지불공 순서, 동지불공 진행, 삼보통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제례, 영가시식, 동지고사, 팔죽 예화
- 행사시리즈 6: 방생(175쪽) 방생이란, 방생준비, 방생식순, 방생진행, 연지대사방생문, 어류방생, 어류방생기도문, 조류방생, 조류방생 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이야기, 방생공덕 등
- 행사시리즈 7: 재가불자수계(150쪽) 계율삼사칠중, 소승오계, 십계,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수계란, 어린이 수계식, 성인불자 수계식, 거사불명, 보살불명
- 행사시리즈 8: 출가수계식(150쪽) 계율, 소승계 분류, 십계, 사십팔경, 구족계, 비구계, 비구니계, 대승계 분류,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출가 수계식, 수계준비, 수계식순, 수계진행, 법명
- 행사시리즈 9: 점안의식 상(179쪽) 점안이란? 불보살 복장의식, 불보살 점안 준비, 불보살 점안식순, 불보살 점안 진행, 법회 진행, 나한 점안의식, 사천왕 점안의식
- 행사시리즈 10: 점안의식 하(180쪽) 점안이란? 점안 준비, 시왕 점안의식, 조탑 점안의식, 가사 점안의식, 금은전 점안의식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이야기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